

## 소수자 스트레스가 동성애자 및 양성애자의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 속박감을 통한 긍정적 정체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손 주 연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석사졸업

이 영 호<sup>†</sup>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본 연구에서는 소수자 스트레스와 자살사고 간의 관계에서 속박감의 매개효과와 긍정적 정체성의 조절효과를 통합한 조절된 매개효과 모형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온라인 조사를 통해, 총 361명의 동성애자와 양성애자에게 사회적 낙인 인식, 내재화된 동성애 혐오, 반동성애 폭력 경험, 커밍아웃, 속박감, 우울, 자살사고, 긍정적 정체성을 측정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속박감은 소수자 스트레스와 자살사고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수자 스트레스가 속박감의 매개를 거쳐 자살사고를 예측하는 모형에서 긍정적 정체성 하위변인 중 사회정지가 조절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 및 임상적 함의, 후속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소수자 스트레스, 속박감, 자살사고, 동성애, 양성애, LGB 긍정적 정체성

\* 본 연구는 제1저자의 석사학위논문 중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임. 현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근무 중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영호 /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 (14662) 경기도 부천시 지봉로 43 /  
E-mail : yhlee@catholic.ac.kr

 Copyright ©2023, Clinical Psychology in Korea: Research and Practice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스티그마(Stigma)’라는 용어는 낙인을 뜻하는 그리스어로, 사회학자 Goffman(1963)은 이 단어를 어떤 사람의 인격 전체를 뒤덮어서 그가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자신을 타인들 앞에 제시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돌출적이고 부정적인 속성을 가리키는데 사용하였다(김현경, 2015). 이러한 스티그마는 다수의 사람들이 소수 집단에 대해 갖는 고정관념, 부정적인 편견을 반영하므로, 소수 집단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일으켜 실제적인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Corrigan & Wassel, 2008). 한국행정연구원이 발표한 ‘2020년 사회통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동성애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응답은 57.0%를 기록했다. 2013년에 62.1%, 2016년에 55.8%, 2019년에 57.1% 등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는 성소수자로서의 속성이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낙인의 요소로 작동하고 있으며, 차별금지법 제정의 어려움과 동성 커플 파트너십 등록권의 부재 등 성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성소수자가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사회적 스티그마로 인해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해 불편해하거나 은폐하게 되는 스트레스가 장기간 누적되면 성소수자의 정신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Kuyper & Fokkema, 2011; Lehavot & Simoni, 2011; Meyer, 1995). 국내에는 성소수자들이 소수자 스트레스로 인해 타인과의 교류에 있어 많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으며(이호림, 2015), 소수자라는 이유로 폭력을 경험하거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수용되지 못하고 고립감에 시달릴 때 자살사고의 빈도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박수진, 2018).

동성애자와 양성애자는 이성애자에 비해 낮은 심리사회적 적응을 보이며 높은 수준의 우울, 불안, 약물 사용, 자살사고와 시도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D’Augelli, 2002; Espelage, Aragon, Birkett, & Koning, 2008). 국내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살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본 한 연구에서는 성적 정체성이 우울 다음으로 자살사고를 가장 강력하게 설명하는 예측변수로 나타났다(양경미, 방소연, 김순이, 2012). 많은 연구에서 소수자 스트레스 요인인 내재화된 동성애 혐오, 사회적 낙인 인식, 반 동성애 폭력 경험이 높은 수준의 심리적 불편감과 자살사고와 연관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Lea, de wit & Reynolds, 2014; Plöderl et al., 2014; Russell, 2003).

Mereish, Peters & Yen(2019)는 소수자 스트레스가 수치심과 거부민감성을 매개로 하여 자살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고 김성연(2013)은 자살에 대한 대인관계 심리학적 모형을 적용하여 짐이 되는 느낌과 좌절된 소속감이 동성애자의 자살사고로 이어지는 모형을 검증하였다. 또한 김진이(2016)는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성적 지향성에 대한 가족의 수용 정도가 낮을수록 성소수자의 자살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했으며, 여성 동성애자 성인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실시한 이가희(2010)는 반동성애 폭력을 경험한 이들이 자살을 생각하거나 자살을 시도하기도 한다는 점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성소수자가 처한 사회적 환경과 자살 간의 관련성, 자살에 미치는 심리내적 변인과 자살사고를 완충시킬 수 있는 조절변인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소수자 스트레스와 자살 간의 관련성을 다루는 기존의 연구들은 성소수자 개인이 경험하

는 구조적 차별로 인한 자살 취약성을 다루었으나 성소수자가 그러한 차별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성소수자가 한국의 외부적인 현실을 비판하고 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일수록 사회적 스티그마로 인한 무력감이나 패배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할 수 있다. 반면,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행동을 선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진 성소수자일수록 자신이 처한 현실을 적응적으로 재구성하며 심리적 통제감을 회복할 수 있으리라는 점을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성소수자가 현실에 대해 가지는 주관적인 인식이 이들의 주관적인 안녕감과 자살사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자살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과 기존의 모형들을 통합하고자 한 O'Connor(2011)의 통합적 동기-의지 모형(integrated motivational-volitional model)에 따르면 자살에 이르게 되는 과정은 크게 3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 첫 번째 단계는 동기 이전 단계(pre-motivational phase)로 '우울 취약성'과 '환경적인 요소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에 속한다. 이 모형을 적용해보면, 성소수자들은 일반적인 스트레스에 더하여 사회적 스티그마와 차별 등 성소수자라는 지위로 인해 경험하는 부가적인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이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환경적인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모형의 두 번째 단계는 동기 단계(motivational phase)로 다양한 취약성 요인과 스트레스가 패배감을 유발하고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는 속박감이 자살 생각을 예측한다. 그 중 '벗어날 수 없다'고 지각하는 속박감은 자살로 가는 경로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속박감

(entrapment)이란 '지속되어온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벗어날 수 없고 얽매어 있다고 지각'하는 것으로(Williams, 1997), 개인이 통제 불가능하며 끊임없는,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인식과 관련된 심리적 과정을 수반한다(Gilbert & Gilbert, 2003; Williams, 1997). 스트레스를 극복하려는 동기화 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게 되면 결국 그런 상황에 속박되었다 지각하게 되어 이후 우울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이 유발될 수 있다(Pollock & Williams, 2001; 김정호, 홍혜영, 2016에서 재인용). 속박감은 내적 속박감과 외적 속박감 두 가지 차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내적 속박감은 '나는 나 자신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나는 내 생각들과 감정들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등 자신의 부정적인 사고와 고통스러운 감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할 때 지각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Gilbert & Allan, 1998). 반면 외적 속박감은 '나는 현재 처해진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를 찾을 수가 없다.', '나는 내 인생의 여러 가지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강한 욕구가 있다.' 등 지속된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평가하였을 때 자신의 외부 세계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탈출 동기가 유발되면서 지각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김정호(2016)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생활 스트레스가 속박감을 매개로 하여 자살사고와 연결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으며, 김혜지, 배성우(2017)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당면과제스트레스와 대인관계스트레스가 패배감과 속박감의 매개를 통해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혜리(2018)의 연구는 직무스트레스가 외적 속박감을 매개로 하여 자살사고에 이르게 되

는 기제를 보여주었다. 특히 외부 환경으로 인해 지각하는 외적 속박감은 부정적 정서를 통해 간접적으로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종선, 강민철, 조현주, 2012).

차별적인 사회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전복할 힘이 없는 성소수자 개인이 낙인에서 벗어나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자신의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숨기거나 주어진 환경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Gorman-Murray, 2009; Knopp, 2004). 특히 혐오발화나 반동성에 폭력 노출 등과 같이 개인적인 수준에서 해결하기가 어렵고,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에 속할수록 성소수자들은 외부 현실을 고통스럽게 지각할 가능성이 높다. 소수자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고 성소수자를 배척하는 분위기가 높은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성소수자는 낙인과 편견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고 이로 인해 지속적인 긴장 상태에 처하거나 장기적으로 무력감을 느끼게 될 수 있다. 성소수자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폭력, 괴롭힘의 강도가 강할수록 성소수자들은 부정적인 현실에 갇히게 되었다고 느끼며 탈출에 대한 강한 동기를 가질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즉, 성소수자의 심리적 상태는 속박감과 연관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회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유발된 소수자 스트레스와 속박감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소수자 스트레스와 자살사고 간의 관계를 속박감이 매개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Williams의 고통 호소 모델(cry of pain)을 수정한 자살의 도식적 평가모델(schematic appraisals model of suicide: SAMS)에서는 개인이 스트레스를 주는 생활 사건에 직면했을 때 긍

정적인 자기평가가 자살사고를 완충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으며(Johnson, Gooding, Wood & Tarrier, 2010), 국내의 연구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속박감과 패배감을 매개로 자살사고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최윤영, 조현주, 권정혜, 이종선, 2013). 또한 Gilbert(2014)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에 대한 인식 정도가 정신병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하였으며, 자살시도 경험이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살 관련 변인들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한 결과 자기비난 경향성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에 당면했을 때 외부와 소통하기보다는 어려운 상황에서 탈출하려는 동기로 자살을 선택할 위험이 증가한다는 점이 관찰되었다(Fazaa & page, 2003; 최윤영, 조현주, 권정혜, 이종선 2013에서 재인용). 위의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높은 자존감, 긍정적인 인지적 재해석 등이 자살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성소수자의 자기인식을 수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변인을 탐색하는 것이 이들의 자살사고 개입에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성소수자는 사회적 낙인을 인식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하여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Riggle, Mohr, Rostosky, Fingerhut, & Balsam, 2014). Luhtanen(2002)의 연구에서는 동성애자와 양성애자의 긍정적 정체감이 높은 자존감과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다는 것을 입증하였으며, Fingerhut, Peplau & Gable(2010)의 연구에서는 자신의 성 정체성을 긍정하고 성소수자 공동체에 소속감을 느끼는 수준이 높은 성소수자는 그렇지 않은 성소수자와 달리, 사회적 낙

인 인식이 우울증과 유의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소수자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다양한 종류의 정신적 웰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많은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Moradi, Mohr, Worthington, & Fassinger, 2009; Higa et al., 2014; Vaughan & Wachler, 2010). 긍정적인 정체성을 갖는다는 것은 성소수자로 정체화하는 맥락 속에서 자신에 대해 자긍심을 가지는 것으로(Riggle et al., 2014),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해 확고한 의견이나 감정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Riggle & Rostosky, 2012). 이러한 긍정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은 성소수자가 사회적 낙인에 대응할 수 있는 자원으로(Vaughan & Rodriguez, 2014) 이후 낙인과 관련한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며 심리적 탄력성을 촉진할 수 있다(Rostosky, Cardom, Hammer, & Riggle, 2018).

Riggle과 Rostosky(2012)는 동성애자와 양성애자를 대상으로 한 경험적 연구를 통해 성소수자 정체성과 관련한 8가지의 주요한 긍정적인 주제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성소수자 정체성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으며, 성소수자의 긍정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여러 요인들에 대해 탐색할 수 있었다(Riggle & Mohr, 2015; Riggle et al., 2014). 8가지의 긍정적인 주제 중 첫 번째는 ‘내가 나 자신이 되는 것’, ‘삶을 거짓 없이 살 수 있는 것’, 즉 진실성이며, 두 번째는 ‘정의, 도덕성, 평등에 대한 가치를 깊이 체화하여 자부심과 만족감을 가진 채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세 번째는 ‘성소수자, 비성소수자를 모두 포함하여 타인에게 지지를 제공하고 받으면서 강한 정서적 유대감을 느끼는 것’이다. 네 번째로 ‘성소수자 공동체에 연

결되어 있다고 지각하며 LGBT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가치를 느끼고 이를 통해 다른 성소수자들과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로는 ‘성소수자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적 소수자가 처한 입장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지각하고 공감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교육하는 것’이며, 여섯 번째로 ‘다른 성소수자들에게 멘토로서 활동하며 좋은 역할 모델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일곱 번째로 ‘LGBT 평등을 위해 사회에서 주류의 위치에 속한 사람들이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 ‘사회 정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이성애중심적인 편견과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공적으로 나서서 발언하는 것’이다. 동성애자, 양성애자로 정체화를 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LGB 구성원인 가족 또는 다른 역할 모델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환경에서 성장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자신의 정체성이 주는 의미와 감정을 인식하고 이러한 감정에 대해 명명하는 것은 자기 인식 과정의 일부로서, 개인적인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Riggle et al., 2014).

성소수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자기를 인식하고 숙고하게 되는 경험은 자기의 다른 특징들을 통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Leary & Tangney, 2003; Tajfel, 1981), 개인내적인 성장과 대인관계 대처 기술의 향상을 위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Riggle & Rostosky, 2012). 또한 긍정적 정체성을 발달시키는 과정에서 자신과 비슷한 삶의 궤적을 지닌 사람들과 교류하고 자신을 표현하는 언어를 새롭게 발굴하면서 성소수자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성소수자가 사회적 낙인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로서 긍정적 정체감 수준이

높을 때, 성소수자 집단에 대한 소속감이나 정서적 지지에 대한 가용성을 높이고 사회적 낙인으로부터 오는 부정적 인지를 해소함에 따라 속박감이 줄어들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반면 성소수자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개인은 반동성애적인 편견이나 이성에 규범성을 그대로 내재화하여 동류인 집단과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을 꺼려하거나, 성소수자 집단에 소속감을 가지는 데에 높은 심리적인 장벽을 가지는 등 소수자 스트레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게 되면서 차별적인 현실에 보다 속박되었다 느낄 수 있다. 즉, 자신의 성적 지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소수자 스트레스와 속박감 간의 관계를 더욱더 강화시킬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성적 지향을 긍정적인 자기 정체성의 일부로 수용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속박감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해볼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성애자 및 양성애자의 소수자 스트레스가 속박감과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이를 완충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긍정적 정체성을 채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소수자 스트레스가 속박감의 매개를 거쳐 자살사고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을 가정하였다. 또한 이러한 소수자 스트레스가 긍정적 정체성과 상호작용하여 속박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라 가정하였다. 이와 같은 변인들 간 관계를 그림 1에 연구모형으로 제시하였다. 연구를 통해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문제와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수자 스트레스가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속박감이 매개할 것이다. 둘째, 소수자 스트레스가 속박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긍정적 정체성이 조절효과를 보일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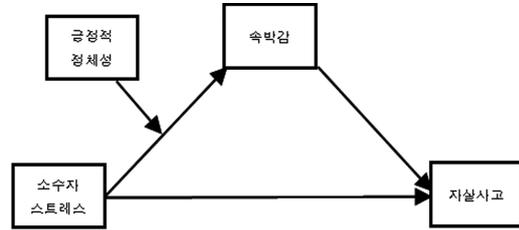


그림 1. 연구 모형

다. 셋째, 소수자 스트레스가 속박감을 매개로 자살사고에 영향에 미치는 관계를 긍정적 정체성이 조절하는 조절된 매개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를 통해 자살사고로 발전하기 이전에 속박감을 줄이거나 자기인식을 수정하는 등의 인지적 측면에 초점을 두면서 성소수자가 소수자 스트레스에 회피하지 않고 자신의 소수자 정체성을 수용하고 환경에 보다 주체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맥락을 제공하고자 한다.

## 방 법

### 참가자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시스젠더 남·녀 성인 동성애자, 양성애자 총 40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온라인 홍보와 눈덩이 표집을 통해 모집되었다. 온라인 설문은 성소수자 온라인 커뮤니티 2곳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네이버카페, 각 대학 커뮤니티의 LGBT 게시판을 통해 홍보하였으며 SNS 홍보는 연구자 개인 계정으로 설문조사 관련 글을 게시한 후 성소수자 단체 및 개인 계정들이 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눈덩이 표집의 경우 각

대학 내의 성소수자 모임 회원들에게 참여를 요청하고 이들의 지인들에게 설문 소개를 요청하였다. 온라인 설문지는 연구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동의서를 제시한 후 이에 동의한 사람에게 한해 설문에 응답할 수 있도록 했다. 총 405명의 응답자 중 동성애자, 양성애자를 제외한 에이섹슈얼, 트랜스젠더, 퀘스처너리로 정체화한 응답자 20명, 만 18세 미만의 성소수자 13명, 지정 성별을 기입하지 않은 응답자 7명, 해외 거주자 4명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361명의 자료를 선별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5.3세( $SD = 5.00$ , 범위 = 19-46세)였으며 이 중 여성이 263명, 남성이 98명이었다.

#### 측정도구

##### 소수자 스트레스

Meyer의 소수자 스트레스 모형에 근거해 측정된 소수자 스트레스의 하위 요인별 척도 구성은 다음과 같다. 3개의 개별적인 하위척도의 각 문항들을 합산한 결과를 소수자 스트레스 분석에 사용하였다.

**사회적 낙인 인식 척도(Stigmatization Scale: SS).** 사회적 낙인 인식 척도는 Harvey(2001)가 고안한 낙인화 척도(Stigmatization Scale)를 강병철(2011)이 수정 및 번안하여 타당화하였으며, 사회적 낙인의 대상이 되는 집단의 성원이 사회로부터 거부당하는 느낌의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이다. 강병철(2011)은 본 척도의 안면타당도 검사를 통해, 사회적으로 완전히 커밍아웃을 한 사람에게만 해당될 수 있는 문항을 제외하고, 12문항으로 설문을 구성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이며, 각 문항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을 구하며, 총점이 높을수록 사회적 낙인을 많이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측정도구의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는 Harvey(2001)의 연구에서 .94로 나타났으며, 한국의 성소수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병철(2011)의 연구에서는 .78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는 .86으로 나타났다.

##### 내재화된 동성애 혐오 척도(Internalized Homophobia Scale: IHS).

Martin과 Dean(1987)이 개발한 내재화된 동성애 혐오 척도는 사회적 스티그마를 내면화하여 자신의 성적 지향성을 부인하는 정도와 동성애에 대한 욕망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성적 끌림과 느낌을 회피하는 정도를 평가한다.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성적지향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내면화한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국외 연구에서 이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는 .79(Meyer & Dean, 1998), .86(Frost & Meyer, 2009) 등으로 보고되었으며, 한국 성소수자들을 대상으로 한 박의주(2012)의 연구에서는 .86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87로 나타났다.

##### 반동성애 폭력 척도(Anti-Gay Violence: AGV).

Dean, Wu & Martin(1992)이 개발한 것을 김은경(2001)이 번안한 척도로서 자신이 성소수자임을 알거나 추측하는 사람들로부터 겪은 언어적, 신체적 폭력의 빈도를 측정한다. 본 척도는 반동성애 폭력의 경험을 유형 및 수준에 따라 나누어 각 수준별로 3문항씩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번도 없다(0점)'에서 '세 번 이상(3점)'의 4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여 0점에서 27점의 점수범위를 가진다. 각 문항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을 구하며, 총점이 높을수록 반동성에 폭력 경험이 많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는 김은경(2001)의 연구에서 .72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82로 나타났다.

#### **드러내기 척도(Outness Inventory: OI)**

Mohr와 Fassinger(2000)가 제작하였으며 12문항의 7점 리커트 척도이다. 드러내기 척도(OI)는 성소수자 개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냈는지(커밍아웃), 그 정도와 범위를 측정하는 척도로 가족, 사회(직장상사와 동료, 낯선 사람 등), 종교 등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점이 높을수록 더 높은 수준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개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사람이 모든 문항에 답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최종 총점은 단순 총점을 응답한 문항수로 나누어 그 평균치로 한다. 개발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는 하위 요인에 따라 .79 ~ .97이었으며 종교와 관련된 문항을 제외한 임민경(2014)의 연구에서는 남성 .75, 여성 .77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임민경(2014)의 번역본을 사용하였으며,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는 .76이었다.

#### **속박감 척도(Entrapment Scale: ES)**

속박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Gilbert와 Allan(1998)이 개발하고, 이종선과 조현주(2012)가 국내 대상생들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속박감 척도(Entrapment Scale: ES)를 사용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이며 내면의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고 지각하는 내적 속박감 6문항과, 현재 처해진 어려운 상황이

나 관계로부터 도망가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느끼는 동시에 그러한 상황에 갇혀 도저히 벗어날 길이 없다고 느끼는 외적 속박감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저자는 척도 타당화 과정에서 각각 별개의 척도로 타당화를 진행하였다. 이종선과 조현주(2012)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는 내적 속박감이 .89, 외적 속박감은 .92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는 내적 속박감이 .90, 외적 속박감이 .92였다.

#### **우울척도(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

전겸구, 최상진, 양병창(2001)이 우리말로 표준화한 통합적 한국판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를 사용하였다. 통합적 한국판 CES-D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리커트 척도이다. 각 문항에 대해 지난 1주일 동안 느끼고 행동한 것 중 자신에 대해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정도를 0(극히 드물게)에서 3(거의 대부분)까지의 범위로 평가한다. 전겸구 등(2001)에서의 한국판 CES-D의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는 .91이었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는 .94로 나타났다.

#### **자살사고 척도(Beck Scale for Suicide Ideation: SSI)**

본 연구에서는 Beck, Kovacs와 Weissman(1979)이 개발한 임상 면접용 Beck의 자살사고 척도(Beck Scale for Suicide Ideation: SSI)를 신밋섭, 박광배, 오경자와 김중술(1990)이 자기보고형 질문지로 번안 및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SSI의 검사결과는 이후에 보일 자살행동의 중요한 예측지표가 될 수 있고, 자살위험에

대한 임상가의 평가와 높은 상관성이 있음이 보고되었다(Beck et al., 1979; 한혜선, 2015에서 재인용). SSI는 총 19문항에 3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총점의 범위는 0점에서 38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 욕구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민섭(1990) 등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는 .89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92였다.

#### 한국판 동성애자/양성애자 긍정적 정체성 척도(Korean Version of Lesbian, Gay, Bisexual Positive Identity Measure: K-LGB-PIM)

Riggle et al., (2014)이 동성애자와 양성애자의 긍정적 정체성을 다차원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를 장지윤(2016)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1)'에서 '매우 동의한다(7)'까지 7점 리커트 척도의 24개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위요인은 자각(Self-awareness), 진실성(Authenticity), 소속감(Community), 친밀감(Intimacy), 사회 정의(Social Justice)로 구성되어 있다. 자각은 "정체성은 나 자신에 대해 더 잘 알아차리게 한다"와 같이 성소수자 정체성으로 인한 자기 이해 정도를 측정하며, 진실성은 자신의 정체성을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타인에게 편안하게 개방할 수 있는 정도를 측정한다. 또한 소속감은 "동성애자/양성애자 공동체에는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 기회가 많다"와 같이 개인이 성소수자 공동체에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를 측정하며, 친밀감은 "정체성을 인정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사람을 사귄 수 있게 되었다", "나의 정체성은 내가 애인과 더 잘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된다" 등 정체성에 대한 긍정이 친밀한 파트너를 찾고 가까워지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측정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정의는 "동성애자/양성애자 관련 이슈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은 중요하다", "내가 동성애자/양성애자이기 때문에 사회적 통념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더 존중한다" 등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을 민감하게 자각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한다. 남녀 비이성애자(lesbian, gay, bisexual, queer, pansexual, fluid) 624명을 대상으로 한 개발연구(Riggle et al., 2014)에서 하위요인의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 .85에서 .95로 나타났다. 한국의 20세 이상 남녀 동성애자와 양성애자 411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판 타당화 연구(장지윤, 2016)에선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가 .77에서 .89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93으로 나타났다.

####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22.0 프로그램과 SPSS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성적 지향성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 통계 및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소수자 스트레스, 속박감, 우울, 자살 사고, 긍정적 정체성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Pearson 이변량 상관 계수를 구하였다.

셋째, 소수자 스트레스와 자살사고와의 관계에서 속박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PROCESS macro 4번을 실시하였다.

넷째, 소수자 스트레스와 속박감 간의 관계에서 긍정적 정체성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자료를 평균 중심화 한 뒤 위계적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긍정적 정제 성 하위요인 5가지에 대해 각각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7번을 실시하였으며 평균을 기준으로 한 +1SD와 -1SD로 이루어진 신뢰 구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가톨릭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IRB No. 1040395-201902-09)을 받은 이후 승인된 표준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

## 결 과

###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성적 지향 관련 특성

본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인과 성적에서 성적지향,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사회경제적 수준, 종교, 거주지를 포함하였으며 성적 지향관련 특성으로는 성소수자 커뮤니티 활동

표 1.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 = 361)

| 변수            | 구분      | 빈도(명) | 백분율(%) |
|---------------|---------|-------|--------|
| 생물학적 성별       | 여성      | 263   | 72.9   |
|               | 남성      | 98    | 27.1   |
| 성적지향          | 여성 동성애자 | 130   | 36.0   |
|               | 남성 동성애자 | 86    | 23.8   |
|               | 여성 양성애자 | 133   | 36.8   |
|               | 남성 양성애자 | 12    | 3.3    |
| 연령            | 20대     | 290   | 80.3   |
|               | 30대     | 65    | 18.0   |
|               | 40대     | 6     | 1.7    |
| 거주지           | 서울·경기   | 251   | 69.5   |
|               | 인천      | 24    | 6.6    |
|               | 강원      | 6     | 1.7    |
|               | 세종·충청   | 17    | 4.7    |
|               | 부산·경남   | 22    | 6.1    |
|               | 대구·경북   | 27    | 7.5    |
|               | 광주·전라   | 9     | 2.6    |
|               | 제주도     | 5     | 1.4    |
| 상담/ 정신과 치료 경험 | 있음      | 149   | 41.3   |
|               | 없음      | 212   | 58.7   |
| 상담/치료 만족도     | 만족함     | 57    | 36.8   |
|               | 만족하지 않음 | 47    | 30.3   |
|               | 잘 모르겠음  | 51    | 32.9   |

여부, 성적 지향을 포함한 상담 및 치료 경험, 상담 만족 여부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성적 지향성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성적 지향성에 따른 소수자 스트레스 변인 및 드러내기, 긍정적 정체성 기타 정신건강 관련 평균 및 표준편차 결과는 표 2와 같다.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측정된 주요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그리고 상관관계를 표 3

에 제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모든 변인들이 서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수자 스트레스와 자살사고 간의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r = .37, p < .01$ . 또한 매개변인인 속박감과 자살사고는 높은 수준의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r = .63, p < .01$ , 속박감은 우울과도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r = .80, p < .01$ .

**소수자 스트레스와 자살사고와의 관계에서 속박감의 매개효과**

소수자 스트레스가 속박감을 매개하여 자살사고에 이르는 간접효과 검증을 하기 위해

표 2. 성별 및 성적 지향에 따른 종속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 변수          | 여성 동성애자<br>(n = 130) | 여성 양성애자<br>(n = 133) | 남성 동성애자<br>(n = 87) | 남성 양성애자<br>(n = 12) |
|-------------|----------------------|----------------------|---------------------|---------------------|
|             | M(SD)                | M(SD)                | M(SD)               | M(SD)               |
| 사회적 낙인인식    | 35.67<br>(9.48)      | 37.27<br>(8.78)      | 34.94<br>(9.11.)    | 35.27<br>(8.76)     |
| 내재화된 동성애 혐오 | 18.03<br>(7.91)      | 18.24<br>(7.37)      | 21.44<br>(9.15)     | 24.72<br>(8.74)     |
| 반동성애 폭력     | 2.61<br>(4.17)       | 2.40<br>(3.71)       | 3.75<br>(4.90)      | 3.36<br>(2.76)      |
| 드러내기        | 2.97<br>(1.06)       | 2.92<br>(1.01)       | 2.80<br>(1.18)      | 2.60<br>(1.48)      |
| 긍정적 정체감     | 5.59<br>(0.94)       | 5.20<br>(1.06)       | 5.24<br>(1.08)      | 4.87<br>(0.99)      |
| 속박감         | 39.59<br>(16.54)     | 46.09<br>(17.85)     | 39.44<br>(17.40)    | 50.17<br>(16.84)    |
| 우울          | 21.53<br>(14.19)     | 25.73<br>(15.32)     | 21.17<br>(13.83)    | 28.09<br>(13.67)    |
| 자살사고        | 10.53<br>(7.96)      | 13.83<br>(8.76)      | 8.00<br>(7.39)      | 10.90<br>(6.09)     |

표 3.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 결과

|              | 1     | 1-1   | 1-2   | 1-3  | 2    | 3     | 4     | 4-1   | 4-2   | 5     | 6     |
|--------------|-------|-------|-------|------|------|-------|-------|-------|-------|-------|-------|
| 1. 소수자 스트레스  |       |       |       |      |      |       |       |       |       |       |       |
| 1-1 사회적 낙인인식 | .82   |       |       |      |      |       |       |       |       |       |       |
| 1-2 내재화된 혐오  | .73   | .31   |       |      |      |       |       |       |       |       |       |
| 1-3 반동성애폭력   | .54   | .35   | .15   |      |      |       |       |       |       |       |       |
| 2. 드러내기      | -.17  | -.06  | -.31  | .11  |      |       |       |       |       |       |       |
| 3. 긍정적정체감    | -.23  | -.01  | -.44  | .01  | .37  |       |       |       |       |       |       |
| 4. 속박감       | .56   | .50   | .40   | .24  | -.16 | -.33  |       |       |       |       |       |
| 4-1. 내적 속박감  | .53   | .46   | .41   | .21  | -.16 | -.33  | .93   |       |       |       |       |
| 4-2. 외적 속박감  | .54   | .49   | .37   | .25  | -.15 | -.31  | .97   | .82   |       |       |       |
| 5. 우울        | .48   | .47   | .29   | .25  | -.11 | -.29  | .80   | .77   | .77   |       |       |
| 6. 자살사고      | .36   | .43   | .08   | .28  | -.01 | -.14  | .63   | .58   | .62   | .64   |       |
| 평균           | 58.04 | 36.07 | 19.13 | 2.83 | 2.90 | 5.34  | 42.27 | 15.55 | 26.71 | 23.19 | 11.15 |
| 표준편차         | 15.91 | 9.13  | 8.21  | 4.19 | 1.08 | 1.04  | 17.52 | 7.24  | 11.04 | 14.63 | 8.37  |
| 왜도           | 0.47  | -0.20 | 0.96  | 2.38 | 0.72 | -0.60 | 0.18  | 0.25  | 0.13  | 0.40  | 0.51  |
| 첨도           | 0.24  | -0.46 | 0.33  | 6.57 | 0.19 | -0.06 | -1.10 | -1.16 | -1.06 | -0.82 | -0.58 |

\*p < .05. \*\*p < .01

process Macro를 이용한 Bootstrapping 방식을 실시하였다. Bootstrapping 방법은 표본 분포의 정규성을 가정하지 않고 대규모의 가상적 무선 표본을 생성한 후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알아보는 방법이므로(Shrout & Bolger, 2002), 간접효과의 정규성을 가정하는 Sobel test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검증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reacher, Rucker & Hayes, 2007). 우선 본 연구에서는 속박감과 우울간의 상관이 .80로 크게 나타나 우울을 공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정신과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Galynker et al., (2017)의 연구에서 속박감은 우울과 관련성이 높은 다른 감정적인 고통보다 자살 행동을 더욱 더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살 행동에 대한 통합적 동기-의지 모형을 검증한 O'Connor, Smyth, Ferguson, Ryan, & Williams, (2013)의 연구에서도 우울이나 기타 심리학적 변인을 통제한 이후에도 속박감이 자살로 가는 경로를 예측해주어, 속박감이 자살에 이르는 핵심적인 위험 요인임을 입증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속박감과의 상관이 큰 우울의 영향을 통제하여, 속박감의 고유한 설명력을 알아보고자 macro 4에서 우울을 공변인으로 투입한 후 속박감과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소수자 스

트레스는 속박감을 매개하여 자살 사고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소수자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속박감이 높아졌고( $B = 0.22, p < .001$ ), 속박감이 증가는 자살사고의 증가와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B = 0.32, p < .001$ ). 소수자 스트레스가 속박감의 증가를 통해 자살사고를 증가시키는 간접효과의 부트스트래핑 결과, 신뢰구간[.01, .05]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소수자 스트레스가 속박감을 거쳐 자살사고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수자 스트레스가 자살 사고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부트스트랩 신뢰구간[-.04, .04]이 0을 포함하고 있어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속박감은 소수자 스트레스와 자살사고와의 관계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수자 스트레스와 속박감의 관계에서 긍정적 정체성의 조절효과

소수자 스트레스와 속박감 간의 관계에서 긍정적 정체성이 조절효과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통해 조절효과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였다. 다중공선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을 평균 중심화

표 4. 속박감의 매개 효과(완전매개)

| 변인        |      | B   | S.E | t       | 신뢰구간 |      |
|-----------|------|-----|-----|---------|------|------|
| 독립변인      | 종속변인 |     |     |         | LLCI | ULCI |
| 속박감의 매개효과 |      |     |     |         |      |      |
| 소수자 스트레스  | 속박감  | .22 | .03 | 6.64*** | .17  | .32  |
| 속박감       | 자살사고 | .32 | .03 | 4.56*** | .08  | .21  |
| 소수자 스트레스  | 자살사고 | .00 | .02 | 0.01    | -.04 | .04  |

주. \*\*\* $P < .001$ , Boot LLCI = 상한값, Boot ULCI = 하한값.

표 5. 속박감의 Bootstrapping 효과

|            | Effect | Boot S.E. | 95% 신뢰구간 |      |
|------------|--------|-----------|----------|------|
|            |        |           | LLCI     | ULCI |
| 종속변인: 자살사고 | .03    | .01       | .01      | .05  |

Boot LLCI = 상한값, Boot ULCI = 하한값.

표 6. 긍정적 정체성 - 사회정지의 조절 효과

| 단계 | 예측변인        |      | T     | R <sup>2</sup> ( $\Delta R^2$ ) | F      |
|----|-------------|------|-------|---------------------------------|--------|
| 1  | 우울          | .80  | 25.38 | .64                             | 644.39 |
|    | 우울          | .70  | 20.39 |                                 |        |
| 2  | 소수자 스트레스    | .21  | 6.16  | .68(.03)                        | 249.47 |
|    | 사회정지        | -.00 | -0.23 |                                 |        |
| 3  | 우울          | .70  | 20.39 |                                 |        |
|    | 소수자 스트레스(A) | .20  | 5.97  | .68(.00)                        | 190.15 |
|    | 사회정지(B)     | -.01 | -0.44 |                                 |        |
|    | A x B       | -.06 | -2.13 |                                 |        |

\* $p < .05$ ,  $p < .01$ ,  $p < .0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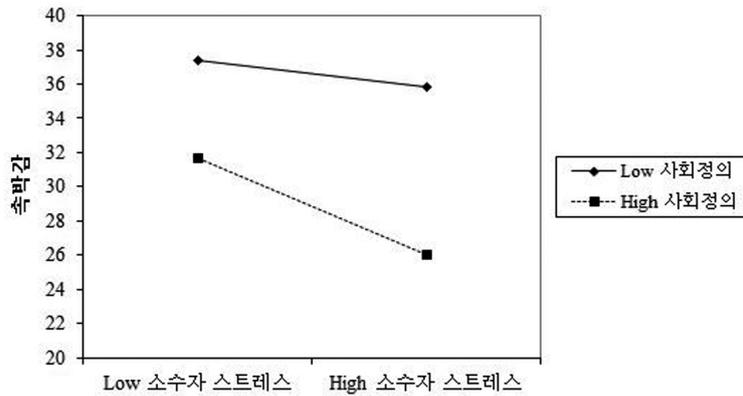


그림 2. 소수자 스트레스와 사회정지의 상호작용 효과

(mean centering)한 뒤 위계적 회귀분석 절차에 따라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1단계에서 공변인인 우울을 통제하고 2단계에서 독립변수

인 소수자 스트레스와 긍정적 정체성의 하위요인을 추가하여 투입하였다. 3단계에서 소수자 스트레스와 긍정적 정체성의 하위요인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긍정적 정체성의 5가지 하위요인인 자각, 진실성, 소속감, 친밀감, 사회정의 중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나타난 하위 요인은 사회정의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사회정의의 수준에 따라 소수자 스트레스가 속박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고 Aiken, West, Reno(1991)이 제안한 방법에 따라 조절변인인 사회정의가 높은 경우(+1SD)와 낮은 경우 (-1SD)에 대한 소수자 스트레스와 속박감 간의 관계를 그래프로 그렸다. 결과는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소수자 스트레스와 속박감의 관계에서 사회정

의의 조절된 매개효과

마지막으로 가설 4를 검증하기 위해 소수자 스트레스가 자살사고를 예측하는 모형에서 속박감을 매개변인, 사회정의를 소수자 스트레스와 속박감 간의 관계에서 조절변인으로 하는 조절된 매개모형을 PROCESS macro 7번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사회정의의 평균 -1SD, 평균 수준, 평균 +1SD 수준에서 모두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아 조절된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위 결과를 종합해보면 소수자 스트레스와 속박감 간의 관계를 사회정이가 매개할 수 있지만, 소수자 스트레스와 자살사고 간의 관계에서 속박감의 매개효과를

표 7. 사회정의의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결과

|  | 종속변수: 속박감   |            |          |       |      |
|--|-------------|------------|----------|-------|------|
|  | <i>b</i>    | <i>S.E</i> | <i>t</i> | LLCI  | ULCI |
| Constant                                   | 1.46        | .19        | 7.54     | 1.08  | 1.84 |
| 우울   | .05         | .00        | 20.83    | .04   | .05  |
| 소수자 스트레스(A)                                | .28         | .08        | 3.50     | .12   | .44  |
| 사회정의(B)                                    | -.00        | .00        | -.28     | -.01  | .01  |
| A X B                                      | -.00        | .00        | -2.33    | -.01  | -.00 |
|  | 종속변수 : 자살사고 |            |          |       |      |
|  | <i>b</i>    | <i>S.E</i> | <i>t</i> | LLCI  | ULCI |
| Constant                                   | -.18        | 1.01       | -.18     | -2.18 | 1.82 |
| 우울   | .21         | .03        | 5.61     | .14   | .29  |
| 소수자 스트레스                                   | .10         | .18        | .56      | -.26  | .47  |
| 속박감  | 2.38        | .53        | 4.43     | 1.32  | 3.44 |
| 조절된 매개지수<br>(index of moderated mediation) |             | <i>S,E</i> |          | LLCI  | ULCI |
|  |             | -.02       |          | -.03  | -.00 |

\**p* < .05, \*\**p* < .01, \*\*\**p* < .001, Boot LLCI = 상한값, Boot ULCI = 하한값.

표 8. 사회정의의 수준에 따른 조건부 간접효과

|           | 사회정의 | Effect | Boot S.E. | 95% 신뢰구간 |      |
|-----------|------|--------|-----------|----------|------|
|           |      |        |           | LLCI     | ULCI |
| 매개변인: 속박감 | -1SD | .32    | .09       | .15      | .54  |
|           | M    | .20    | .06       | .09      | .34  |
|           | +1SD | .14    | .06       | .02      | .28  |

Boot LLCI = 상한값, Boot ULCI = 하한값.

사회정의가 조절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국내 동성애자와 양성애자를 대상으로 성적 지향성과 관련된 주요 변인에서의 차이를 알아보고, 성별 및 성적 지향성에 따른 자살사고의 차이를 알아보려 하였다. 또한 소수자 스트레스와 자살사고와의 관계에서 속박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 긍정적 정체성이 조절효과를 보이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정신건강 지표들을 중심으로 동성애자/양성애자의 정신건강 수준을 알아본 결과 본 연구 대상자의 우울 수준은 평균 23.19로 나타나 이들이 높은 수준의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양성애자 여성과 양성애자 남성의 우울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Radloff(1977)가 제시한 CES-D에 의한 우울증 선별을 위한 절단점(cutoff point) 점수인 16점, 통합적 한국판 CES-D(전경구 등, 2001)에서 제시한 절단점인 21점을 초과하는 점수이다. 또한 Gilbert와 Allan(1998)

이 성인 우울 환자 9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외적 속박감은 25.2 내적 속박감은 18.6으로 보고되었다(천속희, 2008). 본 연구에서는 외적 속박감이 26.71, 내적 속박감이 15.55로 나타나 본 연구에 참여한 동성애자와 양성애자들이 우울 환자와 유사한 수준의 속박감을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외적 속박감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것은 한국 사회의 적대적인 환경과 성소수자로서의 부정적인 경험 등 국내의 동성애자 및 양성애자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소수자 스트레스와 자살사고와의 관계를 속박감이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속박감은 우울을 통제하고 난 후에도 자살사고에 대한 증분 설명량을 보여주어 성소수자의 자살을 설명하는데 속박감이 유의한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우울증, 과거의 자살 시도, 그리고 다른 자살 위험 요인을 통제하고 난 후에도 속박감이 자살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O'Connor et al.,2013). 속박감의 완전 매개 역할은 소수자 스트레스 자체가 자살사고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기보다는 지속되는 소수자 스트레스로 인해 성소수자가 현재 처한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고 지각하고 현실을 고통스

럽게 인식할 때 자살사고의 빈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드러낸다. 자살사고에 대한 속박감의 영향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경험하는 높은 속박감을 자살의 전조 신호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 Williams의 고통 호소 모델(1997)과 속박감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국내의 연구 결과(김정호, 홍혜영, 2016; 이종선 등, 2012)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성소수자들이 소수자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상황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지각하고 평가하는지가 정신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Gilbert와 Allan(1998)이 측정한 성인 우울 환자들의 속박감 수준을 비교했을 때 성소수자들의 내적 속박감 수준은 낮은 반면, 외적 속박감이 더욱더 높게 나타난 점을 고려하면 성소수자 개인의 감정이나 생각 등의 심리내적인 경험도 중요하지만 강한 탈출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는 외적 현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속박감 수준이 높은 성소수자들을 대상으로 치료적 개입을 할 때 내적 사고와 감정에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외부 환경이나 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조망하면서 외적 현실에 대한 통제권을 스스로 가지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소수자 스트레스와 속박감 간의 관계에서 긍정적 정체성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긍정적 정체성 하위변인 중 사회정의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사회정의를 제외하고 자각, 진실성, 소속감, 친밀감에서는 유의한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사회정의 척도 문항의 일부인 “내가 동성애자/양성애자이기 때문에 타인의 편견이나 차별에 더 민감하다”, “동성애자/양성애자로서의 경험은 내가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등을 고려할 때 성소수자 개인이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해 편안하게 느끼고, 성소수자 공동체 내 구성원들에게 친밀감을 느끼는 등 개인화된 방식으로만 소수자 문제에 대응하기보다는 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종류의 차별과 억압에 대해 민감성을 지니고 주변화된 그룹이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 행동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책임감을 지닐 때 자기통제감을 가지게 되어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지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추측할 수 있다. 즉, 동성애자 및 양성애자가 준거집단의 구성원들과 의미 있는 연결을 맺으면서 개방된 자기 인식을 지니는 동시에 일상에 존재하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할 사회적 책임감을 지니는 등 자신을 능동적인 주체로서 규정할 때 고통스러운 외부 현실에 갇혀 있다고 지각하는 수준이 낮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O'Connor(2011)가 제시한 통합적 동기-의지 모형의 동기 이전 단계인 “환경적인 취약성이 때때나 굴욕의 느낌을 유발해 속박감에 이르는 과정에서 사회적 문제 해결, 대처 능력 등이 속박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 점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개인이 스트레스 상황을 어떻게 견디고 대처하는지에 따라 자신이 처한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고 지각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낮은 정신건강 수준을 가진 성소수자들을 대상으로 치료적 개입을 할 때 부정적 정신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albee(1983)의 연구와 “자기 학대적인 분노가 억압과 차별을 당연시하는 이분법적 사회에 대한 분노로 전환되어 변화의 표적을 개인이 아니라 사회로 돌리는 것이 성소수자 활

동가로 살아가는 데 큰 탄력성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보여준 성정숙, 이현주(2010)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맥락이다.

마지막으로 소수자 스트레스가 속박감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자살사고를 예측하는 모형에서 사회정의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사회정의 수준이 평균보다 1표준편차 낮은 집단에 비해 평균보다 1표준편차 높은 집단의 자살사고가 낮게 나타났지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본 연구에서 사회정의와 자살사고 간의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점을 고려하면, 사회정의가 자살사고 간의 연관성은 있지만 소수자 스트레스가 속박감을 거쳐 자살사고에 이르는 과정에서 사회정의가 가지는 설명량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부정적인 자기인식과 자기비난적인 태도가 자살사고에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Fazaa & page, 2003; Johnson et al., 2010)와 자기 수용이 높은 사람은 반동성에 폭력으로 인한 정서적 고통을 경험하더라도 자살사고의 빈도가 낮아지게 된다는 연구 결과(박수진, 2019)와는 다소 상이한 대목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 평가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개념으로서 소수자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채택하였으므로, 통합적인 자기개념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지닐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사회정의의 개념은 성소수자 개인의 소수자 정체성에 대한 수용 정도뿐만 아니라 차별에 대한 민감성, 타인에 대한 연대의식을 반영하는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긍정적인 자기 인식과 관련된 개념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지닐 수 있다. 또한 본 연구 대상자들의 긍정적 정체감의 수준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고, 높은 수준으로 다소 편중되게 분포

되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양한 환경에 놓여있는 성소수자들을 고르게 표집 하여 소수자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성소수자들이 자살을 생각하지 않게 만들 보호 요인으로서 긍정적 정체감의 역할을 추후 반복검증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의 다양한 면에서 명시적, 암묵적 차별에 놓여있는 사회적 소수자의 현실을 조망하고 이들의 열악한 정신건강을 조명했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적 지향성과 자살사고 간의 관계성을 단순히 확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자살이론에 근거하여 성소수자의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리내적 변인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향후 성소수자 자살 관련 연구의 확장이나 성소수자 자살 예방에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회적 낙인과 차별을 인식함으로써 오는 부정적 정서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소수자의 탄력성으로 긍정적 정체감을 선정하여 이에 대한 영향을 탐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사회정의에 대한 인식은 성소수자 당사자가 구조적 차별과 폭력에 민감하게 하고 성소수자 인권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발화하게 하는 등 적대와 혐오를 마주하는 일상 속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책략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정의의 역할을 조명함으로써 한국의 동성애자 및 양성애자가 사회적 낙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소수자 스트레스 경험으로 인한 현실지각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성소수자의 자살사고에 대해

알아보고자 했다. 하지만 소수자 스트레스를 적게 경험하고 성소수자로서 삶이 만족스러운 성소수자라고 할지라도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 자살사고가 높을 수 있다. 소수자 지위에서 기인하는 스트레스 외 경제적 문제, 대인관계, 개인적 특성 등에 대한 고찰이 미진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성소수자의 속박감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다른 변인들을 소수자 스트레스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둘째, 소수자 스트레스는 사회 구조적인 원인으로 인해 촉발된, 장기간 경험되는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긍정적 정체성 향상과 같은 개인적 차원의 인식 개선만으로는 분명한 한계점이 존재한다. 소수자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인식 개선 이전에 성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사회, 제도적인 풍토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심리내적인 변인과 더불어 사회경제적 조건, 정책적 변화, 성소수자 공동체의 역할 등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소수자 스트레스가 속박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변인을 탐색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본 연구에 응한 대상자의 70% 이상이 여성 성소수자이며, 남성 성소수자는 적게 표집이 되었다. 그 중에서도 남성 양성애자의 수는 12명으로 여성 양성애자에 비해 훨씬 적은 수가 표집이 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성적 지향성에 따른 정신건강 수준 차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 결과 여성 양성애자 집단의 속박감과 우울, 자살사고가 여성 동성애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남성 양성애자의 경우는 표본 수가 적어 다른 성소수자 집단과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양성애자는 동성애자 비해 성

소수자 커뮤니티에 대한 낮은 소속감을 보일 뿐만 아니라 더 높은 수준의 낙인에 대한 민감감과 정체성 혼돈을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Balsam & Mohr, 2007). 또한 양성애자로 정체화한 여성이 일생동안 자살시도를 보고하는 비율이 이성애자로 정체화한 여성에 비해 6배, 동성애자로 정체화한 여성에 비해 2배나 높으며(Bolton & Sareen, 2011), 여성 양성애자가 여성 동성애자, 남성 동성애자, 남성 양성애자에 비해 자살사고에서 더 높은 비율을 보인다는 국내의 선행 연구(이혜민, 박주영, 김승섭, 2014)가 존재하나 본 결과에서 나타난 여성 양성애자의 낮은 정신건강 수준이 여성 양성애자가 처한 특수한 어려움에 기인하는 것인지, 여성 및 남성 양성애자의 전반의 어려움인지 변별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여성 양성애자와 남성 양성애자를 균등하게 모집하여 성별 및 성적 지향성에 따른 정신건강 수준의 차이를 반복 검증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표집의 어려움, LGBTAIQ 집단 내에서도 차별과 폭력의 양상이 각기 다른 점, 젠더 정체성의 문제가 연구에 혼입되는 것을 통제하고자 무성애자, 트랜스젠더, 젠더퀴어, 인터섹스는 연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시스젠더 동성애자 및 양성애자만을 대상으로 자살 연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정체성을 지닌 성소수자들을 포괄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특히 LGBTAIQ 내에서도 트랜스젠더는 성별 패싱으로 인한 스트레스, 노동 환경에서의 차별, 의료적 주변화, 퀴어 집단 내의 낙인과 배제 등 차별 양상이 훨씬 더 심각하므로(손인서, 2018; 손인서, 이혜민, 박주영, 김승섭, 2017; Herman, 2013), 추후 트랜스젠더의 소수자 스

트레스와 자살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는 연구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 번째,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설문을 진행하였고, 인구통계학적으로 다양한 분포를 보이는 연구 참여자를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성소수자 커뮤니티 접근성이 높은 수도권, 고학력의 20대 성소수자 위주로 편향되게 표집이 되었다. 이로 인해 본 연구 대상자들이 경험하는 소수자 스트레스가 낮은 수준으로, 긍정적 정체성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다소 고르지 못한 분포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한국의 동성애자·양성애자 전체에 일반화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소수자 스트레스의 경험이 적으며 정체성 가시화 수준이 높으며, 긍정적 정체성을 획득하기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환경 속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추후 연구에서는 성소수자 커뮤니티 접근성이 떨어지는 비수도권 거주자나 인적 네트워크, 정보, 교육기회로부터 소외되어 정체성 수행이 어려울 수 있는 다양한 범위에 속하는 성소수자들을 포괄할 필요성이 있겠다.

마지막으로 국내에 타당화된 소수자 스트레스 관련 척도들이 비교적 오래된 척도들로, 현실에 맞지 않는 용어나 미묘한 차별을 포함한 표현들이 일부 있었으므로 이를 변화하는 현실에 맞게 수정하거나 보다 최신의 척도를 타당화 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성애자/양성애자 긍정적 정체성 척도는 전통적인 동성애자 및 양성애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성소수자들의 경험을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아직까지 국내에는 성소수자 관련 연구를 위한 표준화된 척도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기에 많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성적 지향성 은폐, 성 정체성에 대한 사회적 지지, 성소수자 공동체 소속감(connectedness), 소수자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전략 등 한국의 실정에 맞는 표준화된 척도를 개발하거나 해외 척도에 대한 타당화 작업을 활발하게 진행하여 성소수자의 정신건강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강병철 (2011). 사회적 낙인 인식이 성소수자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42(2), 381-417.
- 김성연 (2013). 대인관계 심리학적 모형으로 본 동성애자의 자살.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경 (2001). 동성애 관련 스트레스가 남성 동성애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호, 홍혜영 (2016).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 내적속박감과 외적속박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7(1), 391-413.
- 김진이 (2016). 가족의 태도가 성적 소수자의 커밍아웃 후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질적 연구.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경 (2015). *사람, 장소, 환대*. 서울: 문학과 지성사.
- 김혜지, 배성우. (2017). 대학생의 자살생각 경로 분석: 통합적 동기-의지 모형을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39, 1-23.
- 박수진 (2018). 성소수자의 소수자 스트레스가

-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 정서적 고립의 매개효과와 자기 수용의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한신대학교 정신분석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주, 신나미, 한금선, 강현철, 친숙희, 신현정 (2011). 서울시내 인문계 고등학생의 우울 실태 및 속박감의 매개효과.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1(5), 663-672.
- 박의주 (2011). 남성 동성애자의 내재화된 동성애 혐오와 심리적 안녕감 및 드러내기 간의 관계: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정숙, 이현주 (2010). 동성애자인권활동가의 청소년기 경험과 탄력성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31, 173-204.
- 손인서 (2018). 트랜스젠더의 젠더정체성 구성. *경제와사회*, 198-228.
- 손인서, 김승섭 (2015). 한국의 차별경험과 건강 연구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보건사회연구*, 35(1), 26-57.
- 손인서, 이혜민, 박주영, 김승섭 (2017). 트랜스젠더의 의료적 트랜지션과 의료서비스 이용. *한국사회학*, 51(2), 155-189.
- 신민섭, 박광배, 오경자, 김중술 (1990). 고등학생의 자살 성향에 관한 연구.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9(1), 1-19.
- 신승배 (2013). 한국 동성애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보건사회연구*, 33(1), 380-415.
- 양경미, 방소연, 김순이 (2012). 대학생의 자살 생각 영향요인. *스트레스研究*, 20(1), 41-50.
- 이가희 (2010). 한국 사회 속 여성 동성애자들의 반동성애 폭력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소영, 조현주, 권정혜, 이종선 (2014). 패배감이 불안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기인식과 속박감의 순차중다매개효과. *인지행동치료*, 14(2), 285-303.
- 이종선, 강민철, 조현주 (2012). 외적 속박감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1(4), 883-905.
- 이종선, 조현주. (2012). 한국판 내적 속박감 및 외적 속박감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1), 239-259.
- 이혜리, 백용매 (2018). 직무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31-231.
- 이혜민, 박주영, 김승섭 (2014). 한국 성소수자 건강 연구. *보건과 사회과학*, 36, 43-76.
- 이호림 (2015). 소수자 스트레스가 한국 성소수자(LGB)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민경 (2014). 남녀 동성애자의 내면화된 성적 낙인 척도 타당화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지운 (2016). 한국판 동성애자/양성애자 긍정적 정체성 척도 타당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지운, 안현의 (2018). 한국판 동성애자/양성애자 긍정적 정체성 척도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0(2), 273-295.
- 전경구, 최상진, 양병창 (2001). 통합적 한국판 CES-D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1), 59-76.

- 천숙희 (2012). 성별에 따른 대학생의 일상적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속박감 및 정신건강의 관계.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8(3), 223-235.
- 최윤영, 조현주, 권정혜, 이종선 (2013). 우울취약성과 자살사고의 관계: 속박패배감의 매개효과. *인지행동치료*, 13(3), 423-443.
- 한혜선 (2015). 정신장애인의 고립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스트레스 대처능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iken, L. S., West, S. G., & Reno, R. R.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Newbury Park, Calif.: Sage.
- Albee, G. W. (1983). Psychopathology, prevention, and the just society. *Journal of Primary Prevention*, 4(1), 5-40.
- Allan, S., & Gilbert, P. (2002). Anger and anger expression in relation to perceptions of social rank, entrapment and depressive symptom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2, 551-565.
- Balsam, K. F., & Mohr, J. J. (2007). Adaptation to sexual orientation stigma: a comparison of bisexual and lesbian/gay adul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4, 306-319.
- Beck, A. T., Kovacs, M., & Weissman, A. (1979). Assessment of suicidal intention: The Scale for Suicide Idea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 343-352.
- Beck, A. T., & Steer, R. A. (1991). *Manual for the Beck Scale for Suicide Ideation*. San Antonio, TX: Psychological Corporation.
- Bolton, S. L., & Sareen, J. (2011). Sexual orientation and its relation to mental disorders and suicide attempts: Findings from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The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56(1), 35-43.
- Bostwick, W. B., Boyd, C. J., Hughes, T. L., & McCabe, S. E. (2010). Dimensions of sexual orientation and the prevalence of mood and anxiety disorders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00, 468-475.
- Cass, V. C. (1979). Homosexuality identity formation: A theoretical model. *Journal of Homosexuality*, 4, 219-235.
- Chang, E. C. (2002). Predicting suicide ideation in an adolescent population: Examining the role of social problem solving as a moderator and a mediator.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2, 1279-1291.
- Cochran, S. D., Sullivan, J. G., & Mays, V. M. (2003). Prevalence of mental disorders, psychological distress, and mental health services use among lesbian, gay, and bisexual adult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1, 53-61.
- Corrigan, P., & Wassel, A. (2008). Understanding the stigma of mental illness. *Journal of Psychosocial Nursing*, 42(2), 42-48.
- D'augelli, A. R. (2002). Mental health problems among lesbian, gay, and bisexual youths ages 14 to 21. *Clinical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7, 433-456.
- Dean, L., Wu, S., & Martin, J. L. (1992). Trends in violence and discrimination against gay men in New York City: 1984 to 1990. In G. M. Herek & K. T. Berrill (Eds.), *Hate crimes: Confronting violence against lesbians and*

- gay men* (pp. 46 - 64). Sage Publications, Inc.
- Deaux, K. (1993). Reconstructing social identit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9, 4-12.
- Espelage, D. L., Aragon, S. R., Birkett, M., & Koenig, B. W. (2008). Homophobic teasing, psychological outcomes, and sexual orientation among high school students: What influence do parents and schools have?. *School Psychology Review*, 37, 202-216.
- Fazaa, N., & Page, S. (2003). Dependency and self-criticism as predictors of suicidal behavior.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33, 172-185.
- Fingerhut, A. W., Peplau, L. A., & Gable, S. L. (2010). Identity, minority str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gay men and lesbians. *Psychology & Sexuality*, 1, 101-114.
- Frost, D. M., Lehavot, K., & Meyer, I. H. (2015). Minority stress and physical health among sexual minority individuals.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38, 1-8.
- Frost, D. M., & Meyer, I. H. (2009). Internalized homophobia and relationship quality among lesbians, gay men, and bisexual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6(1), 97.
- Galynker, I., Yaseen, Z. S., Cohen, A., Benhamou, O., Hawes, M., & Briggs, J. (2017). Prediction of suicidal behavior in high risk psychiatric patients using an assessment of acute suicidal state: The suicide crisis inventory. *Depression and Anxiety*, 34(2), 147-158.
- Gilbert, P. (2014). The origins and nature of compassion focused therapy.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3(1), 6-41.
- Gilbert, P., & Allan, S. (1998). The role of defeat and entrapment (arrested flight) in depression: An exploration of an evolutionary view. *Psychological Medicine*, 28, 585-598.
- Gilbert, P., Allan, S., Brough, S., Melley, S., & Miles, J. N. V. (2002). Relationship of anhedonia and anxiety to social rank, defeat and entrapment.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71, 141-151.
- Gilbert, P., & Gilbert, J. (2003). Entrapment and arrested fight and flight in depression: An exploration using focus groups.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76(2), 173-188.
- Goffman, E. (1963). *Stigma*. Englewood Cliffs. New Jersey, NJ: Spectrum.
- Gonzalez, K. A., Rostosky, S. S., Odom, R. D., & Riggle, E. D. (2013). The positive aspects of being the parent of an LGBTQ child. *Family Process*, 52, 325-337.
- Gooding, p., Tarrier, N., Dunn, G., Shaw, J., Awenat, Y., Ulph, F., & Pratt, D. (2015). The moderating effects of coping and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feat, entrapment and suicidality in a sample of prisoners at high risk of suicide. *European Psychiatry*, 30, 988-994.
- Gorman-Murray, A. (2009) Intimate mobilities: Emotional embodiment and queer migration. *Social and Cultural Geography*, 10, 441-460.
- Harvey, R. D. (2001).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phenomenological impact of social stigma.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1, 174-189.
- Herek, G. M., Gillis, J. R., & Cogan, J. C. (2009).

- Internalized stigma among sexual minority adults: Insights from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6, 32-43.
- Herek, G. H., & Glunt, E. K. (1995). Identity and community among gay. AIDS, identity, and community: The HIV epidemic and lesbians and gay men.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Lesbian & Gay Issues*, 2, 55-84.
- Herman, J. L. (2013). Gendered restrooms and minority stress: The public regulation of gender and its impact on transgender people's lives. *Journal of Public Management & Social Policy*, 19, 65-80.
- Higa, D., Hoppe, M. J., Lindhorst, T., Mincer, S., Beadnell, B., Morrison, D. M., ... & Mountz, S. (2014). Negative and positive factors associated with the well-being of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queer, and questioning (LGBTQ) youth. *Youth & Society*, 46, 663-687.
- Johnson, J., Gooding, P., & Tarrier, N. (2008). Suicide risk in schizophrenia: explanatory models and clinical implications, The schematic appraisal model of suicide (SAMS).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81, 55-77.
- Johnson, J., Gooding, p. A., Wood, A. M., & Tarrier, N. (2010). Resilience as positive coping appraisals: Testing the schematic appraisals model of suicide (SAM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8, 179-186.
- Knopp, L. (2004) Ontologies of place, placelessness, and movement: Queer quests for identity and their impacts on contemporary geographic thought. *Gender, Place and Culture*, 11, 122-134.
- Kuyper, L., & Fokkema, T. (2011). Minority stress and mental health among Dutch LGBs: Examination of differences between sex and sexual orient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8, 222-233.
- Lea, T., de Wit, J., & Reynolds, R. (2014). Minority stress in lesbian, gay, and bisexual young adults in Australia: Associations with psychological distress, suicidality, and substance use. *Archives of Sexual Behavior*, 43, 1571-1578.
- Leary, M. R., & Tangney, J. P. (2003). The self as an organizing construct in the behavioral and social sciences. *Handbook of Self and Identity*, 15, 3-14.
- Lehavot, K., & Simoni, J. M. (2011). The impact of minority stress on mental health and substance use among sexual minority wom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9, 159-170.
- Luhtanen, R. K. (2002). Identity, stigma management, and well-being: A comparison of lesbians/bisexual women and gay/bisexual men. *Journal of Lesbian Studies*, 7, 85-100.
- Major, B., & O'Brien, L. T. (2005). The social psychology of stigma.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6, 393-421.
- Maria, P., Gooding, P., Taylor, P., & Tarrier, N. (2012). Negative self appraisals and suicidal behavior among trauma victims experiencing PTSD symptoms: The mediating role of defeat and entrapment. *Depression and Anxiety*, 29, 187-194.
- Martin, J. and Dean, L. (1987). *Ego-Dystonic*

- Homosexuality Scale*. School of Public Health, Columbia University.
- McCabe, S. E., Hughes, T. L., Bostwick, W. B., West, B. T., & Boyd, C. J. (2009). Sexual orientation, substance use behaviors and substance dependence in the United States. *Addiction, 104*, 1333-1345.
- McCarn, S. R., & Fassinger, R. E. (1996). Revisioning sexual minority identity formation: A new model of lesbian identity and its implications for counseling and research.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4*, 508-534.
- McDaniel, J. S., Purcell, D., & D'Augelli, A. R. (2001). The relationship between sexual orientation and risk for suicide: Research findings and future directions for research and prevention.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31*, 84-105.
- Mereish, E. H., Peters, J. R., & Yen, S. (2019). Minority stress and relational mechanisms of suicide among sexual minorities: Subgroup differences in the associations between heterosexist victimization, shame, rejection sensitivity, and suicide risk.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49*(2), 547-560.
- Meyer, I. H. (1995). Minority stress and mental health in gay men.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6*, 38-56.
- Meyer, I. H. (2003). Prejudice, social stress, and mental health in lesbian, gay, and bisexual populations: Conceptual issues and research evidence. *Psychological Bulletin, 129*, 674-697.
- Meyer, I. H. (2007).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as social stressors. In I. H. Meyer & M. E. Northridge (Eds.), *The health of sexual minorities: Public health perspectives on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populations* (pp. 242 - 267). Boston: Springer.
- Meyer, I. H., & Dean, L. (1998). Internalized homophobia, intimacy, and sexual behavior among gay and bisexual men.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Lesbian and Gay Issues, 4*, 160-186.
- Mohr, J., & Fassinger, R. (2000). Measuring dimensions of lesbian and gay male experience.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 33*, 66-66.
- Moradi, B., Mohr, J. J., Worthington, R. L., & Fassinger, R. E. (2009). Counseling psychology research on sexual (orientation) minority issues: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6*, 5-22.
- O'Connor, R., & Sheehy, N. (2000). *Understanding suicidal behaviour*. Leicester: British Psychological Society.
- O'Connor, R. C. (2011). Towards an integrated motivational-volitional model of suicidal behaviour. *International Handbook of Suicide Prevention: Research, Policy and Practice, 1*, 181-198.
- O'Connor, R. C., Smyth, R., Ferguson, E., Ryan, C., & Williams, J. M. G. (2013). Psychological processes and repeat suicidal behavior: a four-year prospective stud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81*(6), 1137.
- O'Connor, R. C., & Kirtley, O. J. (2018). The integrated motivational-volitional model of suicidal behaviour.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 the Royal Society B: Biological Sciences*, 373.
- Park, Y. J., Shin, N. M., Han, K. S., Kang, H. C., Cheon, S. H., & Shin, H. (2011). Depression status of academic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Mediating role of entrapmen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1, 663-672
- Plöderl, M., & Fartacek, R. (2009). Childhood gender nonconformity and harassment as predictors of suicidality among gay, lesbian, bisexual, and heterosexual Austrians. *Archives of Sexual Behavior*, 38, 400-410.
- Plöderl, M., Sellmeier, M., Fartacek, C., Pichler, E. M., Fartacek, R., & Kralovec, K. (2014). Explaining the suicide risk of sexual minority individuals by contrasting the minority stress model with suicide models. *Archives of Sexual Behavior*, 43, 1559-1570.
- Preacher, K. J., Rucker, D. D., & Hayes, A. F. (2007). Addressing moderated mediation hypotheses: Theory, methods, and prescription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42, 185-227.
- Riggle, E. D., & Mohr, J. J. (2015). A proposed multi factor measure of positive identity for transgender identified individuals. *Psychology of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Diversity*, 2, 78-85.
- Riggle, E. D., Mohr, J. J., Rostosky, S. S., Fingerhut, A. W., & Balsam, K. F. (2014). A multifactor Lesbian, Gay, and Bisexual Positive Identity Measure (LGB-PIM). *Psychology of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Diversity*, 1, 398-411.
- Riggle, E. D. B., & Rostosky, S. S. (2012). *A positive view of LGBTQ: Embracing identity and cultivating well-being*.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 Rodol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 385-401.
- Rostosky, S. S., Cardom, R. D., Hammer, J. H., & Riggle, E. D. (2018). LGB positive identit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Psychology of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Diversity*, 5, 482-489.
- Russell, S. T. (2003). Sexual minority youth and suicide risk.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6, 1241-1257.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 422-445.
- Swannell, S., Martin, G., & Page, A. (2016). Suicidal ideation, suicide attempts and non-suicidal self-injury among lesbian, gay, bisexual and heterosexual adults: Findings from an Australian national study. *Australian &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50, 145-153.
- Tajfel, H. (1981). *Human groups and social categories: Studies in social psych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aylor, P. J., Gooding, P., Wood, A. M., & Tarrier, N. (2011). The role of defeat and entrapment in depression, anxiety, and suicide. *Psychological Bulletin*, 137, 391-420.
- Taylor, P. J., Wood, A. M., Gooding, P., & Tarrier, N. (2010). Appraisals and suicidality: The mediating role of defeat and entrapment. *Archives of Suicide Research*, 14, 236-247.

- Testa, R. J., Michaels, M. S., Bliss, W., Rogers, M. L., Balsam, K. F., & Joiner, T. (2017). Suicidal ideation in transgender people: Gender minority stress and interpersonal theory factor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26*, 25-136.
- Vaughan, M. D., & Rodriguez, E. M. (2014). LGBT strengths: Incorporating positive psychology into theory, research, training, and practice. *Psychology of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Diversity, 1*, 325-334.
- Vaughan, M. D., & Waehler, C. A. (2010). Coming out growth: Conceptualizing and measuring stress-related growth associated with coming out to others as a sexual minority.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17*, 94-109.
- Williams, J. M. G., & Williams, M. (1997). *Cry of pain: Understanding suicide and self-harm*. Oxford: penguin

원고접수일 : 2022. 07. 25.

수정원고접수일 : 2022. 11. 04.

게재확정일 : 2022. 11. 14.

## **The Influence of Minority Stress on Suicidal Ideation among Korean LGB Individuals: Moderated Mediation Effects of LGB Positive Identity through Entrapment\***

**Juyeon Shon<sup>1)</sup>**

**Young-Ho Lee<sup>2)†</sup>**

<sup>1)</sup>Department of Psychiatry,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Ilsan Hospital, Clinical Psychologist Trainee

<sup>2)</sup>Department of Psychology, Catholic University, Professor

This present study aimed to examine the mediation effect of entrapment and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lesbian, gay, and bisexual(LGB) positive identity in the influence of minority stress on suicide ideation. By online survey, perceived social stigma, internalized Homophobia, anti-gay violence experience, outness, entrapment, depression, suicide ideation and LGB positive identity were measur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entrapment mediat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inority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Second, In a model in which minority stress predicted suicidal ideation through entrapment, social justice showed moderating effect.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s clinical implications and the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 Minority stress, entrapment, suicide ideation, LGB positive identity*

---

\* This paper is based on a part of the master's thesis of the first author.

† Corresponding Author : Young-Ho Lee / Department of Psychology Catholic University / 43, Jibong-ro, Bucheon-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 E-mail: yhlee@catholic.ac.kr